

노인의 이성교제에 대한 태도 연구 I*

A Study of the Elderly's Attitudes to Dating in Later Life*

숙명여자대학교 가정아동복지학부 가족자원경영전공
부 교 수 장 진 경

Dept. of Family Resources Management, Sookmyung Women's University
Associated Professor : Chang, Jin-Kyung

◁ 목 차 ▷

- | | |
|-------------|-------------|
| I. 문제의 제기 | IV. 결과 및 해석 |
| II. 선행연구 고찰 | V. 결론 및 제언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exam the attitudes of elderly people to dating. This research also investigates the differences of the elderly's attitudes to dating based on demographic, family relation, and social relation variables. Attitudes to elderly dating in this study included the perception, necessity, and difficulty of elderly dating. The sample consisted of 689 elderly Korean people. Data were analyzed by frequencies, mean, standard deviation, Chi-square test, t-test, and F-test. The results showed that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elderly attitudes to dating according to demographic, family relation, and social relation variables.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described in the results section and the implications of these research findings are discussed.

주제어(Key Words): 노년기 이성교제(elderly dating), 노년기 이성교제에 대한 태도(attitudes of elderly dating), 노년기 이성교제에 대한 인지도(perceptions of elderly dating)

Corresponding Author: Chang, Jin Kyung, Associate Professor Sookmyung Women's University, Dept. family & Child Welfare, College of Human Ecology, Sookmyung Women's University, 53-12 Chungpa-Dong 2-Ka, Youngsan-Ku, Seoul, 140-742 Korea
Tel: 82-2-710-9805 E-mail: jinkyung@sookmyung.ac.kr

* 본 연구는 2002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 선도연구자 지원사업에 의해 지원되었음.

I. 문제제기

최근 70대 노부부가 실제로 출연하여 노인의 사랑과 성을 주제로 한 영화 한편의 상영을 놓고 영화등급위원회는 물론 다양한 사회계층에서 노년기의 사랑과 성에 대한 찬반양론의 공방이 있었다(조선일보, 2002년 8월 1일자). 또한 용인지역의 한 실버타운에서 70대 노인 입주자 한 쌍이 서로 사귄다는 이유로 다른 입주자들로부터 풍기문란이라는 명목으로 실버타운에서 퇴출되는 사례(조선일보, 2002년 7월 31일자)가 발생하면서 노년기의 이성교제에 대한 관심은 노년층에게도 찬반양론의 공방으로 이어졌다. 노년기의 성과 사랑 그리고 이성교제에 대한 일련의 사례들은 노년기의 성이나 이성교제에 대한 부정적 사회분위기를 반영할 뿐만 아니라 그 주체가 되는 노인들 스스로도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노인에게 있어서 '성(性)'이나 '이성교제'는 적절치 않다고 여기는 우리 사회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실제 노인들이 느끼는 이성애에 대한 욕구나 성생활은 사회의 통념과는 달리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김광태, 2002; 배나라·박충선, 2002; 이성희·한희선, 2002; 김누영·이현주, 2001; 권명숙, 2001; 손승영, 1999; 임춘식·최복란, 1997; 최영아·이정덕, 1996). 학문적 연구에서 나타난 노년기의 이성교제나 성애에 대한 긍정적인 견해와는 달리 사회적으로 노인들의 이성교제나 성애에 대한 견해는 매우 부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노인 스스로 노년기 이성교제에 대한 양면성을 갖고 있음을 나타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노인이 이성교제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는 한국과는 달리 먼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미국에서는 노인의 이성교제를 부정적인 차원에서 논의하기보다는 보편적이고 노년기의 삶을 긍정적으로 영위하는 하나의 방안으로 접근하려는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되어 있다. 예를 들면, 미국의 인구통계국은 2000년 현재 단순한 친구나 사랑하는 사람과 동거하는 노인인구가 1990년 보다 60%나 증가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문화일보, 2002년 7월 30일). 이러한 사회적 변화는 노년기의 이성교제가 노인들에게 활

기차고 행복한 황혼을 영위할 수 있는 중요한 대안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미 총인구에서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7.3%를 차지하면서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한국은 서구보다 노인복지 및 사회보장제도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한 상황에서 다양한 노인문제를 경험하게 되었다. 노년기에 경험하는 여러 문제들 중 가장 심각한 문제는 고독과 소외감의 문제이다. 한국에서도 근본적인 노인문제 해결을 위해 노년기에 직면하게 될 다양한 문제들 중에서 노년기의 고독과 소외감을 해결해주는 하나의 방안으로 노년기의 이성교제가 조심스럽게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먼저, 노년기 이성교제에 대한 학문적 관심의 증가는 노년기 삶의 질 향상에 이성교제가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노년기 이성교제에 대해 지금까지 이루어진 선행연구들은 노인의 이성교제에 대한 실태조사나 태도 및 가치관 연구(전현식, 2000; 전차수, 1998; 최복란, 1996), 노년기의 역할상실 및 소외감 극복을 위한 이성교제의 역할에 관한 연구(이예중·장진경, 2002; 전현식, 2001; 최정애, 2000; 전차수, 1998; 김태현·한희선, 1996; 이윤숙, 1983), 노인의 이성교제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연구(최정애, 2000), 노인의 성과 사랑에 관한 연구(박형규, 2001; 김현철, 2000; 박승국, 1999; 문장합, 1999; 손승영, 1999), 노인의 성애에 대한 인식 및 태도에 관한 연구(배나라·박충선, 2002; 김문영·이현주, 2001; 김귀분, 2000; 이창은, 2000; 김남초, 1999; 오세근, 1997; Crench, 1996), 노인의 이성교제가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이예중·장진경, 2002; Arling, 1987; Gerson, Jarjoura, & McCord, 1987; Rempel, 1985; Fox, 1977; Cobb, 1976), 노년기 이성교제시의 어려움에 관한 연구(방애심, 1998; Hooyman & Kiyak, 1996; 조성숙, 1996; 최복란, 1996; 이윤숙, 1983), 노년기 이성교제의 어려움에 대한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최정애, 2000; 최복란, 1996) 등이 있다.

다음으로, 노년기 이성교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대중매체를 통해 노년기의 성이나 이성교제는 건강한 노인의 고령기간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노인이

이성교제를 통해 외로움을 덜 수 있고, 애정이나 친밀감을 나눌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노년기 이성교제가 재해석되고 있다. 대중매체는 또한 노년기의 이성교제나 성생활을 긍정적 시각에서 보아야 하며 이를 좋은 관계로 이끌어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사회나 주변의 인식전환이 필요함을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노인 스스로도 이성교제에 대해 감추려 하기보다는 당당하게 드러낼 수 있는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한국에서도 고령사회를 대비하여 노년기 삶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노인의 이성교제에 대해 보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대책 안이 정립되어야 할 시기에 이르게 되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노년기 이성교제의 주체인 노인의 이성교제에 대한 태도에 관한 연구는 미래 노년기 이성교제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노년기의 고독과 소외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이성교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노년기 이성교제에 대한 사회의 긍정적인 해석이나 관심도 중요하지만 노인 스스로가 이성교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노년기 이성교제의 활성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즉, 노년기 이성교제의 주체인 노인의 이성교제에 대한 태도는 노인과 노인이외의 계층에게 노년기 이성교제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정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노인을 대상으로 이성교제에 대한 태도-노인 이성교제에 대한 인지도, 필요성, 어려움, 그리고 어려움의 해결방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또 노인의 이성교제에 대한 태도 중 이성교제의 인지도, 필요성, 그리고 어려움이 노인의 사회인구학적 변인, 가족관계 변인, 그리고 사회관계 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II. 선행연구 고찰

1. 노인 이성교제의 관계적 측면

노년기의 네 가지 어려움 중에서 고독과 소외감

을 극복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 관계적 특성 즉, 가족관계와 사회관계가 중요하다는데 선행연구는 거의 일관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김인혜, 1995; Hatch & Bulcroft, 1992; Arling, 1987; Rempel, 1985; Morgan, 1984). 선행연구는 사람들의 복지감(well-being)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가족 및 친구와의 관계유지 가능성 정도, 접촉빈도 정도, 그리고 관계유형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욱이 노년기의 복지감 증진에 있어서 가족 및 친구와의 관계 형성은 더욱 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며, 노년기의 고독과 소외감을 해소하는데 사회관계가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는데 이견을 보이지 않고 있다. Hatch와 Bulcroft(1992)의 연구에 의하면 은퇴 후 여성노인과 남성노인 모두 사회적 역할이나 활동에 적극성을 보일수록 고독과 소외감을 덜 느끼며 복지감도 증진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Wood와 Robertson(1978)은 노년기의 사회관계 및 활동과 가족관계가 노년기 삶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에서 노년기 삶의 만족도는 사회관계 및 활동변인 하나로 결정된다고 보다는 가족관계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향상되는 것이라고 보고하였다.

노년기 고독과 소외감에 관한 접근법으로(Perlman & Peplau, 1982)는 정신역동적 모형(psychodynamic models), 로저스의 현상학적 견해(Rogers' phenomenological perspective), 존재론적 접근(the existential approach), 사회학적 해석(sociological explanations), 상호작용주의자적 견해(the interactionist view), 인지적 접근(the cognitive approach), 개인적 접근(a privacy approach), 그리고 일반체계이론(general systems theory)이 있다. 이들 접근들 중에서 본 연구는 노년기 네 가지 어려움 중 고독과 소외감을 극복하는데 가족관계와 사회관계 및 활동의 중요성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접근법으로 사회학적 해석, 상호작용주의적 견해, 그리고 인지적 접근을 사용하고자 한다. 이 세 가지 접근법을 간단히 보면, 사회학적 해석은 현대사회에서 고독의 증가는 1차 집단관계의 감소, 가족의 유동성 증가, 그리고 사회적 변동의 증가로 보았으며, 이와

같은 고독과 소외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지표, 대중매체를 통한 개인의 사회화가 중요하다고 보았다(Bowman, 1955).

다음으로, 상호작용주의적 견해는 고독 및 소외감은 사회적 관계에 대한 것으로 고독 및 소외감은 중요한 사회적 요구에 대한 대인관계의 사회적 상호작용이 부족할 때 나타난다고 보았다. 따라서 고독 및 소외감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사회적 활동을 통한 의미있는 사회관계 형성이 중요하다고 보았다(Weiss, 1973).

마지막으로, 인지적 접근에서 고독과 소외감은 한 개인이 현재 형성하고 있는 사회적 관계양상과 희망하는 사회적 관계상의 불일치가 발생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았다(Peplau & Peplau, 1982). 따라서 노년기의 이성교제는 현재 사회관계양상과 희망하는 사회적 관계상의 괴리감을 메워줄 수 있는 한 방안이라고 본다.

이상에서 살펴본 고독과 소외감에 대한 선행연구와 접근법을 종합해보면, 노년기의 고독 및 소외감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노년기에 적합한 사회관계를 변화시키고 노년기의 사회적 요구를 증대시킬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방법은 사회활동을 통해 새롭고 의미있는 사회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 노인 이성교제에 대한 태도

한국에서 성과 사랑의 개념은 주로 젊은층을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기 때문에, 노년기 이성교제에 대해서는 다소 사회적으로 수용하는 경향을 보이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도 부정적인 측면과 긍정적인 측면이 팽배하다. 홀로된 노인을 대상으로 노년기 이성교제에 대한 연구들을 보면, 노인들은 나이가 많아도 이성에 대한 관심이 줄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신장호, 2000; 문장합, 1999; 박정하, 1998; 전차수, 1998). 이러한 연구는 노인이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인간관계의 상실 또는 사회적 지위 상실 등으로 고독 및 소외감을 경험하게 되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노년기 이성교

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와 같은 추세를 바탕으로 노인의 이성교제에 대한 전반적인 태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본 장에서는 노인 이성교제의 태도를 이성교제 인지도, 필요성, 어려움, 그리고 해결방법을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먼저, 노인 이성교제의 인지도에 관한 연구를 보면 이성교제를 원하는 노인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남자노인의 경우 70대가 48%(196건)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60대 45%(186건), 80대 4%(18건)였다. 여자노인은 60대가 74%(368건)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다음으로 70대 16%(66건)로 나타났다. 즉 남자노인의 경우 나이와 무관하게 이성에 대한 관심이 높은 반면, 여자노인의 경우 이성교제에 있어서 나이를 많이 의식하고 있었다. 노인을 대상으로 노년기 이성교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연구결과(이윤숙, 1983), 조사 대상노인의 64.6%가 노년기 이성교제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이성과의 교제를 원하고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조사대상 노인의 33.6%는 '귀찮다', '바라지 않는다'라는 응답을 보이면서 노년기 이성교제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의 이성교제에 대한 인식을 성별로 살펴본 결과, 노년기 이성교제에 대해 남자노인의 경우 77%가 긍정적으로 본다고 답한 반면, 여자노인의 경우는 60.8%가 노년기 이성교제를 긍정적으로 본다고 응답함으로써 남자노인이 여자노인보다 노년기 이성교제에 대해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더 적극적으로 이성교제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울시에 거주한 노인 1000명을 대상으로 노년기 이성교제에 대한 태도를 연구한 한 조사에 의하면(서울방송, 1997), 남자노인의 경우 85%가 노년기 이성교제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여자노인의 경우 단지 35%만이 이성교제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노인의 이성교제에 대한 인식은 노인의 성별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였다. 60세이상 홀로된 노인 30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에 의한 질적연구를 실시한 한 연구에 의하면, 노인이 이성교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에 대해 조사한 결과 한국사회가 노

년기 이성교제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응답한 노인이 전체노인의 73%를 나타냈고,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노인이 20%, 그리고 별 관심이 없다고 인식하는 노인이 7%인 것으로 나타났다(임춘식·최복란, 1997). 일반적으로 실제 노인이 인지하고 있는 이성에 대한 관심은 사회적 통념과는 달리 매우 높으며, 이성교제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노년기 이성교제에 대해 자녀에게 숨기거나 이성교제를 하게 된다면 자녀의 동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노인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보아 노인 스스로 이성교제에 대해 양면성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다음으로, 노인 이성교제의 필요성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과거에 비해 보다 오랫동안 노년기를 누릴 수 있게 되었지만, 배우자와 사별하였거나 이혼 등으로 홀로된 노인의 경우, 노년기를 홀로 보내야 하는 기간이 길어지게 되었다. 특히 여자 노인은 남자 노인보다 평균 수명이 길고 통상적으로 남편보다 혼인 연령이 낮기 때문에 일찍 홀로 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노년기가 길어지는 생활주기의 변화로 부부간의 의존성이 증가하는 시기에 배우자를 상실한 노인은 노후의 심리적 지지자를 잃고 고독감과 외로움으로 남은 여생을 힘들게 보내게 된다. 따라서 정서적 부양의 주 제공자인 배우자를 대신해 심리적 지지와 애정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다른 이성이 필요하게 되었다. 선행연구에서도 이성교제가 노년기의 고독 및 소외감을 해소시키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노인의 이성교제나 재혼이 늘어가는 추세이며 홀로된 노인의 다수가 고독감을 해소하기 위해 또는 생의 동반자로서 이성교제를 원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이예중, 2002; 전현식, 2001; 전현식, 2000; 최정애, 2000; 전차수, 1998; 최복란, 1996; 이윤숙, 1983). 노인 이성교제의 필요성에 대한 연구에서 동일하게 이성교제가 절실히 필요하며 이성교제가 필요한 가장 큰 이유로 “외로움 달래기”, “좋은 대화상대자를 찾기 위해” 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이예중·장진경, 2002; 최정애, 2000; 박정화, 1998; 전차수,

1998; 임춘식·최복란, 1997; 최복란, 1996).

과거 부모자녀중심의 가족구조가 부부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홀로된 노인이 배우자를 대신하여 고독 및 소외감을 달래고 감소시키기 위해 이성교제에 대한 관심은 높아질 것이다. 노인의 경우 육체적인 성생활이 아니더라도 이성친구가 생김으로써 행복감을 느끼기도 하므로(하영갑, 1998), 활발한 노인의 이성교제는 노년기 고독 및 소외감 해소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셋째, 노인 이성교제의 어려움에 대한 선행연구는 한국에서의 노년기 이성교제는 노년기의 성과 사랑에 대한 문화적 부정주의(negativism)와 단지 늙었다는 이유만으로 노인에 대해 갖는 편견인 연령차별주의(ageism)로 인해 단순히 감정적으로 사랑한다는 느낌을 갖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많은 노력이 요구되는 이성교제에 더욱 더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김시업, 1999). 더욱이 한국의 전통적 관습이나 도덕적 관념은 노인의 이성교제에 대한 사회적 문화적 편견이 팽배하여 실제로 노인의 자유로운 삶을 구속하고 이성과의 만남을 억제한다(Nancy R. Hooyman & H. Asuman Kiyak, 1996; 조성숙, 1996). 선행연구(전현식, 2001; 최정애, 2000; 최복란, 1996; 이윤숙, 1983)는 노년기 이성교제의 어려움으로 자식 및 주변 사람이나 사회의 시선 및 이목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인 스스로나 다른 노인의 이성교제에 대한 편견 역시 이성교제의 어려움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외 노년기 이성교제의 어려움으로 테이트 비용부담, 의사소통의 어려움, 그리고 성적인 문제를 들고 있다. 특히, 성적인 행동은 노인을 무성(無性)의 존재로 인식하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와 성에 대한 노인남녀간의 시각차이로 인해 이성교제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예를 들면, 최복란(1996)은 노인의 이성교제 태도에 관한 연구에서 조사대상자 중 60대 70대 남자노인의 경우 이성교제 시 어려움으로 성적인 문제를 우선으로 꼽았으며, 남자 노인의 경우는 이성친구를 육체적 관계까지로 희망하고 있지만, 여자 노인의 경우는 육체적 관계보다는 대화상대자나 다과를 같이 나눌 수 있는 사교관계를 원하거나 포옹이나 입맞춤의 가벼

운 접촉까지 정도로 한정지으려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홀로된 노인의 최근 성적 욕구는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조사를 통해 남자 노인 12.1%(29명)가 '성행위를 원한다'고 하였으며 이성교제에서 성적욕구 충족을 원한다고 한 반면, 여자 노인 16.3%(39명)는 정신적 이성교제로 말동무 및 다과를 같이 즐기는 것으로 만족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보고하고 있다(방애심, 1998). 이예종·장진경(2002)의 홀로된 노인을 대상으로 이성교제가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 연구에서도 여자노인이 남자노인보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과 이목을 더 크게 인식하고, 성생활에 대한 부담으로 이성교제 시 어려움을 더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신적인 면의 교제를 더 원하는 여자 노인에게는 이와 같은 성적인 문제가 이성교제 시 어려움으로 나타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노인 이성교제의 어려움에 대한 해결 방법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현재 한국에서 노인의 이성교제를 어렵게 만드는 또 다른 요인으로 이성교제를 하는 노인이 이성문제에 대해 의논할 수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노인 전문상담 기관이나 전문가가 부족하다는데 이견을 보이지 않고 있다. 대부분 노인의 경우, 본인이 이성교제를 희망하고 있다 해도 사회적 체면이나 자식의 이해부족으로 자녀와 이성교제 여부를 상의하지 않으며, 이성교제에 관한 어려움이 생기면 노인문제 전문가에게 상담을 의뢰하고 싶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고, 다음으로 혼자 처리하겠다는 응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노인들에게 이성교제 시 생기는 어려움을 상의하거나 의논할 대상이 마땅치 않다는 것과 동시에 가족과 주변인의 시선에서 자유롭게 이성문제를 해결하기 원함을 알 수 있다(최정애, 2000; 최복란, 1996).

III. 연구방법

1. 자료수집 절차

본 연구는 노년기에 직면할 수 있는 네 가지 고

통 중 고독과 소외감의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안으로 노년기 이성교제의 의미를 재해석하고 분석하여 미래 고령사회를 맞이하여 노인이 풍요로운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있다. 본 연구는 또한 연령차별주의로 인해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노년기 이성교제가 활성화되지 않은 현실에서 노인이 이성교제를 하는데 있어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노년기 이성교제에 대한 객관적 시각과 긍정적인 사회적 관심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노인복지 정책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는 가족학 및 노인학 관련 전문가 3인과 일반노인 6인을 대상으로 설문 문항의 타당도 검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2003년 2월 1일부터 2월 15일까지 노인 5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에서 사용된 설문지는 예비조사를 바탕으로 나타난 문제점을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설문조사는 2003년 6월 28일부터 2003년 8월 15일까지 서울·경기 및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노인대학, 노인정, 각 지역 복지관, 이성교제를 주선했던 만남의 광장에 참석한 노인들 그리고 인터넷 노인을 위한 카페를 활용하고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또한 노년기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전교육을 받은 설문조사자 15명이 노인과 일대일 면접을 통하여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총 80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이 중 689부가 회수되었으며, 본 연구자료 처리를 위해 Cronbach' α 계수,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Chi-square 검증, t-검증, 그리고 F-검증의 통계방법이 사용되었다.

2. 측정도구

1) 조사대상자의 개인 및 관계적 특성 측정도구

본 연구는 조사대상자의 개인적 특성과 관계적 특성을 측정하기 위해 사회인구학적 변인, 가족관계 변인, 그리고 사회관계 변인으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사회인구학적 변인은 성별, 연령, 학력, 종교, 경제상태, 건강상태, 결혼상태, 혼자된 기간, 홀로된 후

의 변화, 은퇴전 직업 등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다음으로, 가족관계 변인은 동거인, 자녀와 만나는 빈도, 그리고 자녀와의 거리의 총 3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마지막으로, 사회관계 변인은 스포츠 활동, 노인 모임활동, 그리고 학습활동의 총 3문항으로 구성되었다.

2) 노인의 이성교제에 대한 태도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노인의 이성교제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활용된 도구는 노인 이성교제 인지도 변인, 노인 이성교제의 필요성 변인, 노인 이성교제의 어려움 변인, 그리고 노인 이성교제의 어려움에 대한 해결방법 변인으로 구성되었다. 노인 이성교제 인지도 변인을 측정하기 위한 표준화된 조사도구가 없으므로, 박형규(2000)와 최복란(1996)의 연구를 기초로 재구성하였다. 노인 이성교제 인지도 변인은 이성교제에 대한 관점, 이성관계 유형, 그리고 주변 인식의 총 3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신뢰도 계수 Cronbach' α 계수는 .68로 나타났다.

노인 이성교제의 필요성 변인은 선행연구(최정애, 2000; 박정화, 1998; 전차수, 1998; 최복란, 1996)를 기초로 성적욕구, 외로움해소, 부양부담해소, 그리고 경제적 안정감의 총 4문항을 포함하고 있고, 5점척도의 Likert방식을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이성교제의 필요성을 높게 생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신뢰도 계수 Cronbach' α 계수는 .81로 나타났다.

노인 이성교제의 어려움 변인은 선행연구(전현식, 2001; 최정애, 2000; 방애심, 1998; 최복란, 1996)를 기초로 사회의 부정적 인식, 가족의 부정적 인식, 성생활 부담감 및 건강문제, 경제적 부담, 그리고 성격차이의 총 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방식으로 측정되었고, 점수가 높을수록 이성교제의 어려움이 많은 것을 의미한다. 신뢰도 Cronbach' α 계수는 .78이다. 마지막으로 노인 이성교제의 어려움에 대한 해결방법 변인은 전문가와 상의, 친구 및 동료와 상의 등 총 5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빈도(백분율)로 측정되었다.

IV. 결과 및 해석

1. 조사대상자의 제 특성

1)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본 조사대상자 총 689명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표 1>에 나타나있다. 이를 요약하면, 성별의 경우 남성노인이 368명(53.4%), 여성노인이 321명(46.6%)으로 구성되었으며, 연령은 60세에서 65세미만이 가장 많았고(43.5%), 다음으로 65세에서 70세미만(37.9%), 70세에서 75세미만(15.1%)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력의 경우 고등학교(35.7%)와 중학교(29.8%), 무학 또는 초등학교(23.2%)의 순으로 많은 비율을 나타냈다. 건강상태는 보통(45.4%)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생활비조달은 성인자녀 및 가족에게 의존하는 비율(81.9%)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본인 스스로 조달하는 경우(36.9%)가 많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생활비에 대한 만족도를 보면 59.2%의 응답자가 보통이라고 하였으며, 다음으로 만족하다는 응답(20.8%)이 그 뒤를 이었다. 결혼상태의 경우 사별이 가장 많았고(58.8%), 다음으로 배우자와 동거하는 비율(34.5%)이 많았다. 이 중 홀로된 노인을 대상으로 홀로된 기간과 홀로된 후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홀로된 기간의 경우 5년미만이 가장 많았고(37.8%), 다음으로 5~10년미만(28.0%)인 것으로 나타났다. 홀로된 후의 변화를 묻는 질문에 대해 외로움과 고독감 증가(41.1%)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대화상대 부재(40.5%)의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은퇴전 직업에 대한 질문에 대해 사무관리 및 전문직이 경우(30.1%)가 가장 많았고, 주부(23.1%), 자영업(22.6%)의 순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2) 조사대상자의 가족관계 특성

본 조사대상자의 가족관계 특성을 살펴보면, 응답자의 동거인의 유형에서 34.1%의 응답자가 혼자산다고 보고하였으며, 다음으로 배우자(31.5%), 기혼자녀(30.6%)의 순으로 보고하고 있다. 자녀와 만나는 빈도의 경우 '한달에 3번이하'가 40.3%로 가장 많았

〈표 1〉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가족관계·사회관계 특성

변인	집단	빈도	백분율(%)
성별	남	368	53.4
	여	321	46.6
연령	60세-65세 미만	300	43.5
	65세-70세 미만	261	37.9
	70세-75세 미만	104	15.1
	75세-80세 미만	24	3.5
학력	무학, 초등학교	160	23.2
	중학교	205	29.8
	고등학교	246	35.7
	대졸이상	78	11.3
건강상태	매우 건강	34	4.9
	건강	274	39.8
	보통	313	45.4
	건강하지 못한 편	54	7.8
	건강하지 못함	14	2.0
생활비 조달	본인	247	36.9
	배우자	198	29.6
	성인자녀 및 가족	867	81.9
	연금이나 저축	185	27.7
	정부기관	161	24.1
기타	6	0.9	
생활비 만족도	매우 불만족	12	1.7
	불만족	106	15.4
	보통	408	59.2
	만족	143	20.8
매우 만족	20	2.9	
결혼상태	배우자와 동거	238	34.5
	사별	405	58.8
	이혼 및 별거	40	5.8
	재혼	6	0.9
홀로된 기간	5년미만	169	37.8
	5-10년미만	125	28.0
	10-15년미만	69	15.4
	15-20년미만	42	9.4
	20년이상	42	9.4
은퇴전직업	주부	86	23.1
	서비스판매직	2	0.5
	사무관리 및 전문직	112	30.1
	자영업	84	22.6
	농업	32	8.6
단순노무 및 기술직	56	15.1	
홀로된 후의 변화	의료용과 고독감 증가	213	41.1
	대화상대 부재	210	40.5
	경제적 어려움	35	6.8
	건강 악화	17	3.3

〈표 1〉 계속

변인	집단	빈도	백분율(%)
	변화 없음	29	5.6
	기타	14	2.7
동거인	혼자	235	34.1
	배우자	217	31.5
	기혼자녀	211	30.6
	미혼자녀	17	2.5
	친척, 기타다른사람과	9	1.3
자녀와 만나는 빈도	매일	260	37.7
	일주일에 3번이하	135	19.6
	한달에 3번이하	278	40.3
자녀와의 거리	1년에 4번이하	11	1.6
	기타	5	0.7
	동거	249	36.1
	걸어서 30분 이내	60	8.7
	차로 30분 이내	127	18.4
	차로 1시간 이내	150	21.8
	차로 1시간 이상	91	13.2
	기타	12	1.7
	스포츠 활동	전혀없다	222
일년에 5번미만		50	7.3
한달에 5번이하		142	20.6
일주일에 3번이하		228	33.1
노인모임 활동	거의 매일	47	6.8
	전혀없다	149	21.6
	일년에 5번미만	64	9.3
	한달에 5번이하	113	16.4
학습활동	일주일에 3번이하	220	31.9
	거의 매일	143	20.8
	전혀없다	215	31.2
	일년에 5번미만	83	12.0
	한달에 5번이하	93	13.5
	일주일에 3번이하	278	40.3
	거의 매일	20	2.9

고, 다음으로 동거하여 매일 보는 경우가 37.7%로 많았다. 마지막으로 자녀와의 사는 거리에 대해 '동거'가 36.1%, '차로 1시간 이내'가 21.8%, '차로 30분 이내'가 18.4%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1〉참조).

3) 조사대상자의 사회관계 특성

본 조사대상자의 사회관계 특성을 보면, 스포츠활동의 경우 33.1%의 응답자가 '일주일에 3번이하'

스포츠활동을 한다는데 가장 높은 응답을 보인 반면, 스포츠 활동을 전혀 하지않는다는 응답이 32.2%로 그 다음으로 높은 응답을 보였다. 노인모임활동은 '일주일에 3번이하'가 31.9%, '전혀없다'가 22.6%, 그리고 '거의 매일'이 20.8%의 비율을 보여주고 있으며, 학습활동은 노인모임활동과 마찬가지로 '일주일에 3번이하'가 40.3%로 가장 많은 반면, '전혀없다'가 31.2%로 그 다음으로 많은 응답을 나타냈다(<표 1>참조).

2. 노인의 이성교제에 대한 태도

1) 노인의 이성교제 인지도

노인이 이성교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는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노년기 이성교제 활성화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노인의 이성교제 인지도를 분석한 결과, 이성교제에 대한 관점에서 '건전하다면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응답이 40.0%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자연스러운 일' 37.0%를 차지하였으며, '매우 필요하다'는 비율도 14.6%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노인이 이성교제에 대해 대부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기는 하지만 조건부적 성격이 강한 것으로 나타나 이성교제에 대한 노인의 양면성을 엿볼 수 있는 자료라 할 수 있다. 이성관계 유형에 대해서는 '우정관계'가 75.8%로 가장 많은 비율을 보였으며, 16.8%의 응답자는 이성관계를 애정관계로 규정짓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성교제에 대한 주변의 인식에 대해 '긍정적이다'라는 응답이 46.3%, '부정적이다'라는 응답의 비율이 42.1%로 나타나 노인의 이성교제에 대한 주변인식이 양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는 노인의 이성교제에 대한 인지도를 보여주고 있다.

2) 노인 이성교제의 필요성

노인이 이성교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 질문한 결과(<표 3> 참조), 조사대상자 노인 대부분이 이성교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M=3.28), 이성교제가 필요한 이유로는 '외로움 해

<표 2> 노인의 이성교제 인지도

변인		빈도	백분율(%)
노인 이성교제 인지도 변인	이성교제에 대한 관점	매우필요	100 14.6
		자연스러운 일	254 37.0
		건전하다면 있을 수 있는 일	275 40.0
		전혀필요없음	58 8.4
이성관계 유형	애정관계	116 16.8	
	우정관계	522 75.8	
	결혼대상자	42 6.1	
	성적대상자	9 1.3	
주변인식	긍정적	319 46.3	
	부정적	290 42.1	
	별관심없다	80 11.6	

<표 3> 노인 이성교제의 필요성

N=689

		변인	평균	표준편차
노인 이성교제의 필요성	노인 이성교제의 필요성	성적욕구	3.16	.83
		외로움 해소	3.85	.73
		부양 부담 해소	3.11	1.07
		경제적 안정감	2.74	1.08
	전체	3.28	.63	

소'(M=3.85)에서 가장 높은 평균치를 나타냈으며, 다음으로 '성적욕구'(M=3.16), '부양부담해소'(M=3.11)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인이 이성교제를 통해 얻고 싶은 부분이 무엇인지를 단적으로 나타내준 결과라 할 수 있다. 즉, 노인은 이성교제를 통해 노후의 고독감이나 소외감 및 외로움을 해결하고자하는 욕구가 강하며, 동시에 사회적 통념과는 달리 노인이 이성교제를 통해 성적욕구를 만족시키고자 하는 욕구가 강함을 나타내주는 중요한 자료라 할 수 있다.

3) 노인 이성교제의 어려움

본 결과에도 나타났듯이 노인은 이성교제에 대해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동시에 갖고 있는데 이는 이성교제의 어려움을 살펴보면 이성교제에 대한 노인의 이중적 태도를 좀 더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본다. 따라서 노년기 이성교제의 어려움을 분석한 결과 노인 대부분이 이성교제에 대해 어

려움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M=3.00$), 이성교제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사회의 부정적 인식($M=3.23$)과 가족의 부정적 인식($M=3.17$)을 들고 있다. 이는 노년기 이성교제에 대해 가족을 포함한 사회가 부정적으로 인식함으로써 노인의 이성교제를 활성화시키지 못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부정적 시각이 노인 스스로의 이성교제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본다. <표 4>는 노인이 생각하는 이성교제의 어려움을 보여주고 있다.

<표 4> 노인 이성교제의 어려움 $N=689$

	변인	평균	표준편차
노인 이성교제의 어려움	사회의 부정적 인식	3.23	.75
	가족의 부정적 인식	3.17	.88
	성생활 부담감 및 건강문제	2.80	.77
	경제적 부담감	2.97	.98
	성격차이	2.66	1.03
	전체	3.00	.59

4) 노인 이성교제의 어려움에 대한 해결방법

<표 5>는 노인이 이성교제 시 발생하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누구와 의논하고 싶은지를 살펴본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노인은 이성교제에 따른 어려움이 발생한다면, 52.8%의 응답자가 '친구나 동료와 상의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 '혼자처리' 하겠다는 비율이 29.3%, '전문가와 상의' 하겠다는 비율이 11.2%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5> 노인 이성교제의 어려움에 대한 해결방법

노인 이성교제의 어려움에 대한 해결방법	빈도	백분율(%)
전문가와 상의	77	11.2
친구·동료와 상의	364	52.8
혼자 처리	202	29.3
종교지도자와 상의	17	2.5
가족·자녀와 상의	29	4.2

3.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노인 이성교제의 태도에 대한 차이분석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노인 이성교제에 대한 태도의 차이분석을 위해 사용된 변인은 노년기 이성교제에 대한 선행연구(배나라·박충선, 2002; 이예종·장진경, 2002; 김귀분, 2001; 전현식, 2001)를 기초로 노년기 이성교제에 대한 태도에 중요한 변인이라고 지적된 변인만을 선별하여 분석하였다. 즉 사회인구학적 변인 중 성별, 연령, 학력, 생활비만족도, 그리고 건강상태에 따른 이성교제에 대한 태도-노인 이성교제 인지도, 필요성, 그리고 어려움-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1)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노인 이성교제 인지도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노인 이성교제 인지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성별에서는 이성교제에 대한 관점($p<.001$)과 이성관계 유형($p<.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표 6>참조). 이를 자세히 보면, 성별에 따라 남성노인의 경우 '건전하다면 있을 수 있는 일'(41.0%)이라고 보는 경향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자연스러운 일'(36.7%), '매우 필요'(19.0%)한 것으로 보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여성노인의 경우 '건전하다면 있을 수 있는 일'(38.9%)이라고 보는 경향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자연스러운 일'(37.3%), '전혀 필요없음'(14.4%)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보면, 남성노인이 여성노인에 비해 이성교제를 더 필요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남녀노인 모두 이성교제가 필요하다고 보는데는 근본적으로 동의하지만 여성노인의 경우 남성노인에 비해 이성교제가 절실히 필요하다고는 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난 배경은 여성노인의 경우 노년기를 지금까지 해왔던 아내의 역할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은 욕구 때문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노년기의 이성교제에 대해 남성노인보다 여성노인이 더 개방적임을 시사하고 있다. 이성관계 유형에서도 여성노인이 남성노인에 비해

<표 6>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노인 이성교제 인지도

	성별		χ^2	연령				χ^2	학력				χ^2
	남	여		60-65세 미만	65-70세 미만	70-75세 미만	75-80세 미만		무학,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졸이상	
이성교제에 대한 관점	매우 필요	70(19.0%)	30(9.4%)		47(15.7%)	35(13.5%)	15(14.6%)	3(12.5%)	19(11.9%)	25(12.3%)	43(17.6%)	13(16.7%)	28.07**
	자연스러운 일 있을수있는일	135(36.7%)	119(37.3%)		133(44.3%)	92(35.4%)	27(26.2%)	2(8.3%)	58(36.3%)	78(38.2%)	91(37.1%)	27(34.6%)	
	건전하다면 있을수있는일	151(41.0%)	124(38.9%)	36.28***	109(36.3%)	117(45.0%)	37(35.9%)	12(50.0%)	55(34.4%)	87(42.6%)	102(41.6%)	31(39.7%)	
	전혀 필요없음	12(3.3%)	46(14.4%)		11(3.7%)	16(6.2%)	24(23.3%)	7(29.2%)	28(17.5%)	14(6.9%)	9(3.7%)	7(9.0%)	
이성관계 유형	애정관계	78(21.2%)	38(11.8%)		62(20.7%)	37(14.2%)	14(13.5%)	3(12.5%)	18(11.3%)	36(17.6%)	47(19.1%)	15(19.2%)	9.95
	우정관계	258(70.1%)	264(82.2%)	15.03**	222(74.0%)	202(77.4%)	79(76.0%)	19(79.2%)	131(81.9%)	149(72.7%)	186(75.6%)	56(71.8%)	
	결혼상대자	25(6.8%)	17(5.3%)		12(4.0%)	19(7.3%)	9(8.7%)	2(8.3%)	10(6.3%)	16(7.8%)	11(4.5%)	5(6.4%)	
	성적대상자	7(1.9%)	2(0.6%)		4(1.3%)	3(1.1%)	2(1.9%)	-	1(0.6%)	4(2.0%)	2(0.8%)	2(2.6%)	
주변인식	긍정적	180(48.9%)	139(43.3%)		157(52.3%)	129(49.4%)	29(27.9%)	4(16.7%)	72(45.0%)	86(42.0%)	129(52.4%)	32(41.0%)	36.69***
	부정적	155(42.1%)	135(42.1%)	5.92	108(36.0%)	109(41.8%)	61(58.7%)	12(50.0%)	68(42.5%)	90(43.9%)	95(38.6%)	37(47.4%)	
	별관심없다	33(9.0%)	47(14.6%)		35(11.7%)	23(8.8%)	14(13.5%)	8(33.3%)	20(12.5%)	29(14.1%)	22(8.9%)	9(11.5%)	

*p<.05 **<.01 ***<.001

<표 6> 계속

	건강상태				χ^2	생활비 만족도				χ^2		
	매우건강	건강	건강못한편	건강못함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이성교제에 대한 관점	매우 필요	9(26.5%)	42(15.4%)	46(14.7%)	3(5.6%)		3(25.0%)	16(15.1%)	43(10.6%)	35(24.6%)	3(15.0%)	24.50*
	자연스러운 일 있을수있는일	9(26.5%)	110(40.3%)	110(35.3%)	21(38.9%)	4(28.6%)	1(8.3%)	33(31.1%)	163(40.0%)	50(35.2%)	7(35.0%)	
	건전하다면 있을수있는일	15(44.1%)	94(34.4%)	138(44.2%)	22(40.7%)	6(42.9%)	7(58.3%)	48(45.3%)	167(41.0%)	45(31.7%)	8(40.0%)	
	전혀 필요없음	1(2.9%)	27(9.9%)	18(5.8%)	8(14.8%)	4(28.6%)	1(8.3%)	9(8.5%)	34(8.4%)	12(8.5%)	2(10.0%)	
이성관계 유형	애정관계	5(14.7%)	59(21.5%)	44(14.1%)	8(14.8%)	-	2(16.7%)	16(15.1%)	59(14.5%)	32(22.4%)	7(35.0%)	24.10*
	우정관계	23(67.6%)	187(68.2%)	259(82.7%)	42(77.8%)	11(78.6%)	9(75.0%)	84(79.2%)	323(79.2%)	95(66.4%)	11(55.0%)	
	결혼상대자	4(11.8%)	24(8.8%)	7(2.2%)	4(7.4%)	3(21.4%)	-	5(4.7%)	20(4.9%)	15(10.5%)	2(10.0%)	
	성적대상자	2(5.9%)	4(1.5%)	3(1.0%)	-	-	1(8.3%)	1(0.9%)	6(1.5%)	1(0.7%)	-	
주변인식	긍정적	13(38.2%)	125(45.6%)	152(48.6%)	23(42.6%)	6(42.9%)	3(25.0%)	47(44.3%)	187(45.8%)	74(51.7%)	8(40.0%)	29.24***
	부정적	18(52.9%)	124(45.3%)	123(39.3%)	23(42.6%)	2(14.3%)	2(16.7%)	47(44.3%)	173(42.4%)	58(40.6%)	10(50.0%)	
	별관심없다	3(8.8%)	25(9.1%)	38(12.1%)	8(14.8%)	6(42.9%)	7(58.3%)	12(11.3%)	48(11.8%)	11(7.7%)	2(10.0%)	

*p<.05 **<.01 ***<.001

이성관계를 우정관계로 규정하는 경향이 높은(여성 노인 82.2%, 남성노인 70.1%) 반면, 남성노인의 경우 여성노인보다 이성관계를 애정관계로 규정하는 경향이 많았다(여성노인 11.8%, 남성노인 21.2%). 이는 본 연구결과와 선행연구결과(이예중·장진경, 2002; Lloyd, 1987)에서도 나타났듯이 남성노인의 경우 이성교제를 통해 성적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경향이 높고 애정적 표현에 더 적극적임을 나타내 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연령에 따른 노인 이성교제 인지도는 이성교제에 대한 관점($p<.001$)과 주변인식($p<.001$)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다른 연령집단에 비해 60세~65세미만의 노인만이 이성교제를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보는 견해를 나타냈고(44.3%), 그 외의 연령집단에서는 이성교제를 '건전하다면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보는 경향을 보였다. 이성교제에 대한 주변인식에 대해 60세~65세미만(52.3%)의 노인과 65세~70세미만(49.4%)의 노인 집단에서 이성교제에 대한 주변의 인식이 긍정적이라는 견해가 많은 반면, 70세~75세미만(58.7%)과 75~80세미만(50.0%)의 노인집단에서는 이성교제에 대해 주변의 인식이 부정적이라고 보고 있었다. 60세에서 70세까지는 이성교제에 대해 70세이상의 노인보다 더 개방적임을 알 수 있다.

노인의 학력에 따른 이성교제 인지도에 대한 차이분석 결과 이성교제에 대한 관점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즉, 모든 연령집단에서 이성교제가 '건전하다면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데 동의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도 중학교졸업의 경우(42.6%)가 다른 학력에 비해 이성교제가 자연스러운 일로 보는 경향이 높았다.

노인의 건강상태에 따른 이성교제 인지도의 차이를 보면 이성교제에 대한 관점($p<.01$), 이성관계 유형($p<.001$), 그리고 주변인식($p<.05$)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건강한 노인의 경우(40.3%) 다른 건강상태를 지닌 노인에 비해 이성교제에 대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보는 경향이 높았다. 이성관계 유형에서 건강상태에 상관없이 모든

노년기 이성관계를 우정관계로 규정하고 있었으며, 그 중에서도 건강상태가 보통인 노인의 비율(82.7%)이 가장 높았다. 그러나 흥미로운 결과는 건강한 노인(21.5%)이거나 건강하지 못한 노인(14.8%)의 경우 이성관계를 애정관계로 규정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년기 이성교제에 대한 주변의 인식에 대해 매우 건강한 노인의 경우(52.9%) 다른 건강상태를 보이는 노인보다 이성교제에 대해 주변인식이 부정적일 것이라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건강상태가 매우 좋은 경우 자신들이 이성교제를 하는 이유를 성적인 것으로 주변에서 인식할 것이라고 미루어 짐작하여 부정적일 것이라고 추측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노인의 생활비 만족도에 따른 이성교제 인지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이성교제에 대한 관점($p<.05$), 이성관계 유형($p<.05$), 그리고 주변인식($p<.001$)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생활비에 만족하는 노인의 경우(35.2%) 다른 집단의 노인보다 이성교제를 자연스러운 일로 보는 경향이 높았다. 이성관계 유형에서는 생활비 만족도가 보통인 경우의 노인(79.2%)과 불만족인 노인의 경우(79.2%)가 이성교제를 우정관계로 규정짓는 경향이 높았다. 노년기 이성교제에 대한 주변인식에 대해 흥미로운 결과는 생활비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은 노인의 경우(50.0%) 이성교제에 대해 주변인식이 '부정적이다'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매우 불만족인 노인의 경우(58.3%) 이성교제에 대해 주변에서 '별관심이 없다'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이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노인이 이성교제를 할 경우 성인자녀들이 부모의 재산 때문에 이성교제를 반대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주변의 인식이 부정적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노인의 경우 노인 스스로 이성교제보다는 생활자체의 부담 때문에 이성교제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서도 이성교제에 대해 별로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2)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노인 이성교제의 필요성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노인 이성교제의 필요성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7>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성별(p<.001), 연령(p<.001), 학력(p<.05), p<.001), 그리고 생활비 만족도(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성별의 경우 남성노인의 경우 여성노인에 비해 성적욕구(M=3.39)와 외로움해소(M=3.95)를 위해 이성교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령에 따라서는 60세~65세미만의 경우

다른 연령층에 비해 이성교제의 필요성을 성적욕구(M=3.29)와 외로움해소(M=3.97) 때문이라고 보고 하였다. 학력의 경우 고등학교의 학력을 가지고 있는 노인의 경우 다른 학력집단에 비해 이성교제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성적욕구(M=3.30)와 외로움해소(M=4.00)에 높은 평균을 나타냈다. 생활비 만족도에 따른 노인 이성교제의 필요성에 대한 차이에서는 생활비 만족도에 불만족인 노인(M=3.01)이 다른 집단의 노인보다 경제적 안정감을 위해 이성교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높았다.

<표 7>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노인 이성교제의 필요성

변인		영역	빈도	노인 이성교제의 필요성							
				성적욕구		외로움해소		부양부담 해소		경제적 안정감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성별	남		368	3.39	.65	3.95	.61	3.08	1.04	2.68	.98
	여		321	2.90	.94	3.73	.83	3.16	1.10	2.80	1.18
T 값				7.89***		3.83***		.98		1.37	
연령	60-65세 미만		300	3.29	.88	3.97	.67	3.02	1.03	2.65	1.10
	65-70세 미만		261	3.23	.68	3.91	.60	3.16	1.05	2.87	1.02
	70-75세 미만		104	2.78	.86	3.46	.91	3.15	1.15	2.73	1.13
	75-80세 미만		24	2.49	.87	3.38	1.01	3.54	1.32	2.50	1.14
F 값				16.70***		17.43***		2.23		2.34	
학력	무학, 초등학교		160	3.06	1.07	3.70	.72	3.14	.98	2.72	1.07
	중학교		205	3.11	.62	3.80	.61	3.06	1.01	2.69	.94
	고등학교		246	3.30	.79	4.00	.71	3.07	1.10	2.83	1.15
	대졸이상		78	3.07	.86	3.81	.99	3.35	1.28	2.59	1.20
F 값				3.67*		6.46***		1.58		1.27	
건강상태	매우 건강		34	3.22	.70	3.81	.81	3.44	1.11	3.08	1.06
	건강		274	3.16	.79	3.83	.72	3.09	1.03	2.73	1.07
	보통		313	3.22	.88	3.90	.70	3.04	1.06	2.70	1.09
	건강하지 못한 편		54	2.91	.73	3.69	.79	3.31	1.11	2.89	1.00
	건강하지 못함		14	2.81	1.11	3.73	1.05	3.43	1.45	2.29	1.20
F 값				2.22		1.16		1.93		1.89	
생활비 만족도	매우 불만족		12	3.19	.85	4.10	.73	3.50	1.38	2.75	1.29
	불만족		106	3.20	1.21	3.91	.67	3.33	.93	3.01	1.00
	보통		408	3.11	.71	3.83	.73	3.07	1.09	2.74	1.10
	만족		143	3.29	.78	3.88	.75	3.07	1.08	2.67	.98
	매우 만족		20	3.02	.96	3.48	.77	3.00	.97	1.65	.93
F 값				1.37		2.00		1.80		7.14***	

*p<.05 **<.01 ***p<.001

3)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노인 이성교제의 어려움

노인 이성교제의 어려움에 대해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표 8〉 참조) 성별(p<.05), 연령(p<.001, p<.01), 건강상태(p<.001, p<.05), 그리고 생활비 만족도(p<.001, p<.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성별에서 여성노인(M=2.75)이 남성노인(M=2.58)에 비해 성격차이가 이성교제를 하는데 가장 어려운 점이라고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에서는 70세~75세미만의 연령층(M=3.40)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사회의 부정적 인식이 노년기 이성교제의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나타내고 있으며, 75세~80세미만 노인의 경우 다른 연령층의 노인에 비해 가족의 부정적 인식(M=3.35)과 성격차이(M=2.96)가 이성교제의 어려움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65세~70세미만의 연령층은 다른 연령층의 노인에 비해 경제적 부담감(M=3.12)이 가장 큰 어려움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건강상태에 따른 이성교제의 어려움에 대해 건강하지 못한 편인 노인이 다른 건강상태를 나타내는 노인에 비해 성생활부담감 및 건강문제(M=3.29)가 노년기 이성교제를 하는데 가장 어려

〈표 8〉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노인 이성교제의 어려움

변 인		영 역	빈 도	노인 이성교제의 어려움									
				사회적 부정적인식		가족의 부정적인식		성생활부담감 및 건강문제		경제적 부담감		성격차이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성별	남	368	3.18	.68	3.17	.85	2.82	.75	3.01	1.02	2.58	1.04	
	여	321	3.28	.82	3.17	.90	2.78	.79	2.93	.93	2.75	1.02	
T 값			1.84		.05		.72		1.08		2.12*		
연령	60-65세 미만	300	3.07	.76	3.02	.87	2.71	.78	2.83	.95	2.50	1.01	
	65-70세 미만	261	3.33	.71	3.27	.86	2.87	.73	3.12	.94	2.70	1.07	
	70-75세 미만	104	3.40	.71	3.31	.88	2.87	.80	2.88	1.05	2.94	.89	
	75-80세 미만	24	3.25	.81	3.35	.83	2.85	.87	2.85	1.17	2.96	1.08	
F 값			7.84***		5.47**		2.43		4.24**		5.83**		
학력	무학, 초등학교	160	3.30	.73	3.32	.82	2.84	.70	3.09	.95	2.72	.93	
	중학교	205	3.18	.68	3.11	.84	2.71	.69	2.87	.88	2.52	.96	
	고등학교	246	3.21	.76	3.12	.91	2.85	.81	3.04	1.03	2.68	1.12	
	대졸이상	78	3.24	.91	3.19	.98	2.79	.99	2.76	1.06	2.83	1.07	
F 값			.77		2.13		1.49		3.25		2.18		
건강 상태	매우 건강	34	3.22	.91	3.26	.96	2.46	.89	2.97	1.22	2.74	.99	
	건강	274	3.29	.73	3.22	.87	2.72	.76	2.87	.95	2.66	.99	
	보통	313	3.17	.72	3.11	.85	2.81	.71	3.02	.95	2.56	1.05	
	건강하지 못한 편	54	3.21	.87	3.18	.95	3.29	.92	3.02	1.05	2.89	.96	
	건강하지 못함	14	3.25	.83	3.29	1.09	3.14	.60	3.57	.85	3.71	.99	
F 값			.85		.70		8.94***		2.39*		5.22***		
생활비 만족도	매우 불만족	12	3.04	.81	3.50	.56	3.08	.56	3.58	.99	3.50	1.38	
	불만족	106	3.31	.71	3.31	.86	2.88	.86	3.53	.99	2.81	.94	
	보통	408	3.25	.75	3.17	.76	2.81	.76	2.96	.90	2.66	1.04	
	만족	143	3.13	.79	3.05	.73	2.69	.73	2.68	.92	2.48	.99	
	매우 만족	20	2.98	.64	3.05	.92	2.80	.92	1.80	.83	2.70	1.08	
F 값			1.77		1.90		1.38		22.73***		3.79**		

*p<.05 **<.01 ***p<.001

은 점이라고 보고하고 있으며, 건강하지 못한 노인의 경우 경제적 부담감($M=3.57$)과 성격차이($M=3.71$)가 가장 큰 이성교제의 장애요인이라고 보고 있다. 마지막으로 생활비 만족도에 따른 노인 이성교제의 어려움에 대한 차이를 분석한 결과, 생활비에 대해 매우 불만족하는 노인의 경우 다른 집단의 노인에 비해 경제적 부담감($M=3.58$)과 성격차이($M=3.50$)가 이성교제의 가장 큰 장애물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4. 가족관계 변인에 따른 노인 이성교제의 태도에 대한 차이분석

1) 가족관계 변인에 따른 노인 이성교제 인지도

가족관계 변인에 따른 노인 이성교제의 인지도를 살펴본 결과 먼저, 노인의 동거인에 따른 노인 이성교제의 인지도에 대한 차이를 분석한 결과 이성관계 유형($p<.05$)과 주변인식($p<.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이성관계 유형에 대해 모두 이성관계를 우정관계로 규정짓는 경향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다른 동거인에 비해 '친척 및 다른 사람'과 동거하는 노인의 경우 이성관계를 애정관계(22.2%)로 규정짓는 경향이 높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자신과 직계가족원이 아닌 사람과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이성관계를 애정관계로 생각하는데 별 장애요인이 없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동거인에 따른 노년기 이성교제에 대한 주변인식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혼자 사는 노인(56.2%)과 친척 및 다른 사람과 사는 노인(66.7%)이 다른 집단보다 이성교제에 대한 주변의 인식이 긍정적이라고 보는 경향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혼자 살거나 가족이외의 사람과 살 경우 이성교제에 대해 보다 개방적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자녀와 만나는 빈도에 따른 이성교제 인지도의 경우 주변인식에서($p<.05$)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자녀와 동거를 하는 노인은 다른 노인에 비해 노년기 이성교제에 대한 주변인식이 부정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자녀와 만나는 빈도에서 '기타'라고 응답한 노인의 경우 이성교제

에 대해 주변의 인식이 부정적이거나(40.0%) 별관심이 두고 있지 않다는(40.0%) 응답이 많았고, 그 외의 집단에서는 주변인식이 긍정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9>참조).

2) 가족관계 변인에 따른 노인 이성교제의 필요성

가족관계 변인에 따른 노인 이성교제의 필요성에 대한 차이를 분석한 결과 동거인($p<.01$), 자녀와 만나는 빈도($p<.001$, $p<.05$), 그리고 자녀와의 거리($p<.001$, $p<.01$, $p<.05$)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즉, 동거인이 친척이나 기타 다른 사람일 경우 성적욕구의 필요에 의해 이성교제를 한다는 의견($M=3.00$)이 높았다. 자녀와 만나는 빈도에서는 '1년에 2~4번' 자녀와 만나는 노인의 경우 성적욕구($M=3.45$)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리고 외로움해소($M=4.39$)를 위해서 이성교제가 필요하다는 경향이 높았다. 자녀와의 거리에서는 차로 1시간이상에 해당하는 노인의 경우 성적욕구($M=3.45$) 해소를 위해 이성교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높았고, 차로 1시간이상에 해당하는 노인의 경우 부양부담해소($M=3.38$) 때문이라는 경향이 높았으며, 자녀와의 거리에서 '기타'에 응답한 노인의 경우 다른 노인에 비해 경제적 안정감($M=3.50$) 때문에 이성교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표 10>참조).

3) 가족관계 변인에 따른 노인 이성교제의 어려움

가족관계 변인에 따른 노인 이성교제의 어려움에 대한 차이를 분석한 결과 <표 1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동거인($p<.001$, $p<.01$) 그리고 자녀와의 거리($p<.001$, $p<.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동거인이 친척이나 기타 다른 사람일 경우 사회의 부정적 인식($M=3.50$)과 가족의 부정적 인식($M=3.39$)이 노년기 이성교제의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배우자와 동거하고 있는 노인의 경우 이성교제의 어려움으로 성격차이일 것이라고 보는 경향($M=2.90$)

〈표 9〉 가족관계 변인에 따른 노인 이성교제 인지도

		동거인					χ^2
		혼자	배우자	기혼자녀	미혼자녀	친척 및 다른 사람	
이성교제에 대한 관점	매우 필요	38(16.2%)	29(13.4%)	30(14.3%)	2(11.8%)	1(11.1%)	12.92
	자연스러운 일	95(40.4%)	73(33.8%)	77(36.7%)	3(17.6%)	6(66.7%)	
	건전하다면 있을 수 있는 일	87(37.0%)	95(44.0%)	82(39.0%)	10(58.8%)	1(11.1%)	
	전혀 필요없음	15(6.4%)	19(8.8%)	21(10.0%)	2(11.8%)	1(11.1%)	
이성관계 유형	애정관계	47(20.0%)	37(17.1%)	30(14.2%)	-	2(22.2%)	22.18*
	우정관계	176(74.9%)	163(75.1%)	163(77.3%)	14(82.4%)	6(66.7%)	
	결혼상대자	8(3.4%)	16(7.4%)	16(7.6%)	2(11.8%)	-	
	성적대상자	4(1.7%)	1(0.5%)	2(0.9%)	1(5.9%)	1(11.1%)	
주변인식	긍정적	132(56.2%)	95(43.8%)	82(38.9%)	4(23.5%)	6(66.7%)	21.93**
	부정적	76(32.3%)	96(44.2%)	104(49.3%)	11(64.7%)	3(33.3%)	
	별관심없다	27(11.5%)	26(12.0%)	25(11.8%)	2(11.8%)	-	
		자녀와 만나는 빈도					χ^2
		매일	일주일에 3번이하	한달에 3번이하	1년에 4번이하	기타	
이성교제에 대한 관점	매우 필요	39(15.0%)	21(15.7%)	38(13.7%)	1(9.1%)	1(20.0%)	9.14
	자연스러운 일	96(36.9%)	48(35.8%)	105(37.9%)	4(36.4%)	1(20.0%)	
	건전하다면 있을 수 있는 일	96(36.9%)	53(39.6%)	118(42.6%)	6(54.5%)	2(40.0%)	
	전혀 필요없음	29(11.2%)	12(9.0%)	16(5.8%)	-	1(20.0%)	
이성관계 유형	애정관계	34(13.1%)	25(18.5%)	53(19.1%)	3(27.3%)	1(20.0%)	10.81
	우정관계	206(79.2%)	97(71.9%)	208(74.8%)	8(72.7%)	3(60.0%)	
	결혼상대자	15(5.8%)	12(8.9%)	14(5.0%)	-	1(20.0%)	
	성적대상자	5(1.9%)	1(0.7%)	3(1.1%)	-	-	
주변인식	긍정적	104(40.0%)	62(45.9%)	145(52.2%)	7(63.6%)	1(20.0%)	15.86*
	부정적	128(49.2%)	54(40.0%)	103(37.1%)	3(27.3%)	2(40.0%)	
	별관심없다	28(10.8%)	19(14.1%)	30(10.8%)	1(9.1%)	2(40.0%)	

*p<.05 **<.01 ***p<.001

이 높았다. 이는 본인이 현재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미래 혼자되었을 경우 이성교제를 한다고 생각했을 때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인식하는 것이 성격차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자녀와의 거리에서는 차로 1시간 이상에 거주하는 노인의 경우 다른 노인에 비해 이성교제의 어려움으로 사회의 부정적 인식(M=3.43), 가족의 부정적 인식(M=3.41), 그리고 성격차이(M=3.03)로 보는 경향이 높았고, 자녀와 차로 1시간 이내에 거주하는 노인의 경우

다른 집단에 비해 경제적 부담감(M=3.07)이 이성교제의 가장 큰 장애물로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사회관계 변인에 따른 노인 이성교제의 태도에 대한 차이분석

1) 사회관계 변인에 따른 노인 이성교제 인지도
사회관계 변인에 따른 노인 이성교제 인지도의

〈표 10〉 가족관계 변인에 따른 노인 이성교제의 필요성

변인	영역	빈도	노인 이성교제의 필요성							
			성적욕구		외로움해소		부양부담해소		경제적 안정감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동거인	혼자	235	3.31	.96	3.88	.69	2.97	1.04	2.59	1.11
	배우자	217	3.09	.82	3.80	.86	3.19	1.18	2.77	1.10
	기혼자녀	211	3.05	.69	3.84	.65	3.16	.97	2.82	1.02
	미혼자녀	17	3.24	.67	4.09	.44	3.47	1.23	3.29	1.05
	친척 및 기타다른사람	9	3.33	.55	4.06	.63	3.33	.71	2.89	.93
F 값			3.44**		1.05		2.07		2.72	
자녀와 만나는 빈도	매일	260	3.03	.71	3.79	.74	3.15	1.05	2.77	1.06
	일주일에 3번이하	135	3.16	1.14	3.79	.78	3.14	1.13	2.67	1.07
	한달에 3번 이하	278	3.29	.74	3.92	.69	3.04	1.05	2.72	1.10
	1년에 2-4번	11	3.45	.64	4.39	.26	3.36	.92	3.36	.81
	기타	5	2.20	.45	3.90	1.11	4.20	1.30	2.60	1.82
F 값			5.36***		2.88*		1.91		1.15	
자녀와의 거리	동거	249	3.03	.70	3.80	.72	3.18	1.03	2.76	1.06
	걸어서 30분 이내	60	3.32	1.48	3.82	.79	2.95	1.10	2.63	1.26
	차로 30분 이내	127	3.05	.72	3.81	.72	2.94	1.03	2.50	1.04
	차로 1시간 이내	150	3.25	.75	3.91	.73	3.04	1.10	2.69	1.02
	차로 1시간 이상	91	3.45	.80	3.95	.71	3.38	1.10	3.05	1.08
기타	12	3.08	.83	3.96	.88	3.17	1.19	3.50	.90	
F 값			4.83***		.88		2.45*		4.23**	

*p<.05 **<.01 ***p<.001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12〉에 나타나 있다. 먼저, 스포츠활동에 따른 이성교제 인지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이성교제에 대한 관점(p<.01)과 이성관계 유형(p<.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즉, 스포츠 활동이 전혀 없거나(40.9%), 한달에 5번이하(45.1%)이거나, 거의 매일하는 노인의 경우 이성교제를 건전하다면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보는 경향이 많은 반면, 일년에 5번이하(46.0%)이거나 일주일에 3번이하(39.0%)인 노인의 경우 이성교제를 자연스러운 일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스포츠 활동에 따른 이성관계 유형의 차이에서는 모든 노인이 이성관계를 우정관계로 규정하였으며, 다음으로 애정관계로 규정짓는 경향을 보였다. 노인모임활동에서는 이성관계 유형(p<.01)과 주변인식(p<.001)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노인모임활동을 거의 매일하는 노인의 경우 다른 집단의 노인에 비해 이성관계를 우정관계로 규정짓는

경향이 가장 많았으며, 일년에 5번이하로 모임활동을 하는 노인은 이성관계를 애정관계로 규정짓는 경향이 가장 많았다.

노인모임활동을 일년에 5번이하(48.4%)로 하거나 한달에 5번이하(61.9%)로 하는 노인의 경우 이성교제에 대해 주변의 인식이 부정적일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노인의 학습활동에 따른 노인 이성교제 인지도의 차이를 보면 이성교제를 보는 관점(p<.001)과 이성관계 유형(p<.001), 그리고 주변인식(p<.001)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일주일에 3번이하의 학습활동을 하는 노인만이 이성교제를 자연스러운 일(43.5%)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그 외 집단의 노인은 이성교제가 건전하다면 있을 수 있는 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노인이 이성관계를 우정관계로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노년기 이성교제에 대한 주변의 인식에 대해서는 일주일에 3번이하 학습활동을 하는 노인의 경

〈표 11〉 가족관계 변인에 따른 노인 이성교제의 어려움

변인	영역	빈도	노인 이성교제의 어려움									
			사회적 부정적인식		가족의 부정적인식		성생활부담감 및 건강문제		경제적 부담감		성격차이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동거인	혼자	235	3.07	.82	3.02	.92	2.71	.76	2.86	.91	2.39	1.05
	배우자	217	3.31	.77	3.36	.84	2.91	.85	3.02	1.06	2.90	.96
	기혼자녀	211	3.27	.63	3.12	.81	2.79	.69	3.00	.94	2.69	1.02
	미혼자녀	17	3.47	.57	3.35	1.11	2.82	.79	3.35	1.11	2.88	.99
	친척 및 기타다른사람	9	3.50	.50	3.39	.78	2.78	.67	2.78	.83	2.67	1.00
F 값			4.24**		4.97**		1.95		1.67		7.28***	
자녀와 만나는 빈도	매일	260	3.27	.62	3.13	.78	2.77	.74	2.97	.93	2.65	.99
	일주일에 3번이하	135	3.17	.82	3.16	.95	2.86	.78	2.92	1.10	2.73	1.02
	한달에 3번이하	278	3.20	.82	3.19	.91	2.77	.79	2.96	.95	2.59	1.06
	1년에 2-4번	11	3.59	.49	3.45	1.17	3.36	.67	3.64	.92	3.18	.87
	기타	5	2.90	.65	3.70	.91	2.40	.42	3.00	1.00	3.40	1.52
F 값			1.38		.93		2.19		1.36		1.83	
자녀와의 거리	동거	249	3.26	.59	3.12	.76	2.77	.72	2.94	.88	2.64	.96
	걸어서 30분 이내	60	2.97	.78	2.83	.91	2.84	.75	2.92	1.01	2.33	.98
	차로 30분 이내	127	3.10	.86	3.09	.98	2.76	.85	2.73	1.06	2.41	1.08
	차로 1시간 이내	150	3.24	.76	3.32	.90	2.79	.74	3.07	1.04	2.80	1.06
	차로 1시간 이상	91	3.43	.87	3.41	.86	2.91	.85	3.22	.92	3.03	.98
기타	12	3.33	.69	3.17	1.07	2.83	.91	3.00	.95	2.67	.89	
F 값			3.76**		4.48**		.57		3.15**		5.87***	

*p<.05 **<.01 ***p<.001

우(56.5%) 이성교제에 대해 주변의 인식이 긍정적 이다라고 보는 경향이 많았고, 거의 매일 학습활동을 하는 노인의 경우(45.0%)는 이성교제에 대해 주변에서 별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고 보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그 외 집단의 노인은 이성교제에 대해 주변의 인식이 부정적이라고 보는 경향이 많았다.

2) 사회관계 변인에 따른 노인 이성교제의 필요성

사회관계 변인에 따라 노인 이성교제의 필요성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1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스포츠활동(p<.01), 노인모임활동(p<.001), 그리고 학습활동(p<.05, p<.01, p<.001)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스포츠 활동을 일주일에 3 번이하로 하는 노인의 경우 이성교제가 외로움해소(M=3.98)를 위해서가 가장 높았으며, 일년에 5번이

하로 스포츠 활동을 하는 노인은 경제적 안정감(M=3.20) 때문에 이성교제가 필요하다고 보는 경향이 많았다. 노인모임활동의 경우 한달에 5번이하로 모임활동을 갖는 노인의 경우 이성교제가 부양 부담해소(M=3.50)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가장 높았고, 일년에 5번이하로 활동을 갖는 노인의 경우 경제적 안정감(M=3.47)때문에 이성교제가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학습활동의 경우 일년에 5번이하의 노인의 경우 성적욕구(M=3.25), 외로움해소(M=3.99), 부양부담해소(M=3.78), 그리고 경제적 안정감(M=3.22)때문에 이성교제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3) 사회관계 변인에 따른 노인 이성교제의 어려움

노인 이성교제의 어려움이 사회관계 변인에 따라

〈표 12〉 사회관계에 따른 노인 이성교제 인지도

		스포츠활동					χ^2
		전혀없다	일년에 5번이하	한달에 5번이하	일주일에 3번이하	거의매일	
이성교제에 대한 관점	매우 필요	25(11.4%)	5(10.0%)	20(14.1%)	41(18.0%)	9(19.1%)	31.37**
	자연스러운 일	86(39.1%)	23(46.0%)	47(33.1%)	89(39.0%)	9(19.1%)	
	건전하다면 있을수있는일	90(40.9%)	19(38.0%)	64(45.1%)	85(37.3%)	17(36.2%)	
	전혀 필요없음	19(8.6%)	3(6.0%)	11(7.7%)	13(5.7%)	12(25.5%)	
이성관계 유형	애정관계	35(15.8%)	11(22.0%)	18(12.7%)	43(18.9%)	9(19.1%)	25.80*
	우정관계	172(77.5%)	32(64.0%)	106(74.6%)	177(77.6%)	35(74.5%)	
	결혼상대자	12(5.4%)	7(14.0%)	14(9.9%)	8(3.5%)	1(2.1%)	
	성적대상자	3(1.4%)	-	4(2.8%)	-	2(4.3%)	
주변인식	긍정적	101(45.5%)	25(50.0%)	66(46.5%)	114(50.0%)	13(27.7%)	13.18
	부정적	88(39.6%)	22(44.0%)	60(42.3%)	91(39.9%)	29(61.7%)	
	별관심없다	33(14.9%)	3(6.0%)	16(11.3%)	23(10.1%)	5(10.6%)	
		노인모임활동					χ^2
		전혀없다	일년에 5번이하	한달에 5번이하	일주일에 3번이하	거의매일	
이성교제에 대한 관점	매우 필요	17(11.5%)	13(20.3%)	14(12.4%)	29(13.2%)	27(18.9%)	20.86
	자연스러운 일	47(31.8%)	20(31.3%)	36(31.9%)	96(43.8%)	55(38.5%)	
	건전하다면 있을 수 있는 일	67(45.3%)	23(35.9%)	56(49.6%)	76(34.7%)	53(37.1%)	
	전혀 필요 없음	17(11.5%)	8(12.5%)	7(6.2%)	18(8.2%)	8(5.6%)	
이성관계 유형	애정관계	23(15.4%)	13(20.3%)	22(19.5%)	38(17.3%)	20(14.0%)	27.78**
	우정관계	115(77.2%)	42(65.6%)	74(65.5%)	174(79.1%)	117(81.8%)	
	결혼상대자	10(6.7%)	6(9.4%)	14(12.4%)	7(3.2%)	5(3.5%)	
	성적대상자	1(0.7%)	3(4.7%)	3(2.7%)	1(0.5%)	1(0.7%)	
주변인식	긍정적	69(46.3%)	28(43.8%)	38(33.6%)	105(47.7%)	79(55.2%)	30.85***
	부정적	58(38.9%)	31(48.4%)	70(61.9%)	87(39.5%)	44(30.8%)	
	별관심없다	22(14.8%)	5(7.8%)	5(4.4%)	28(12.7%)	20(14.0%)	
		학습활동 이용					χ^2
		전혀없다	일년에 5번이하	한달에 5번이하	일주일에 3번이하	거의매일	
이성교제에 대한 관점	매우 필요	36(16.9%)	12(14.5%)	11(11.8%)	38(13.7%)	3(15.0%)	37.25***
	자연스러운 일	65(30.5%)	26(31.3%)	37(39.8%)	121(43.5%)	5(25.0%)	
	건전하다면 있을 수 있는 일	81(38.0%)	36(43.4%)	40(43.0%)	111(39.9%)	7(35.0%)	
	전혀 필요 없음	31(14.6%)	9(10.8%)	5(5.4%)	8(2.9%)	5(25.0%)	
이성관계 유형	애정관계	43(20.0%)	17(20.5%)	16(17.2%)	38(13.7%)	2(10.0%)	56.41***
	우정관계	156(72.6%)	57(68.7%)	56(60.2%)	235(84.5%)	18(90.0%)	
	결혼상대자	12(5.6%)	7(8.4%)	18(19.4%)	5(1.8%)	-	
	성적대상자	4(1.9%)	2(2.4%)	3(3.2%)	-	-	
주변인식	긍정적	87(40.5%)	37(44.6%)	33(35.5%)	157(56.5%)	5(25.0%)	55.54***
	부정적	99(46.0%)	41(49.4%)	56(60.2%)	88(31.7%)	6(30.0%)	
	별관심없다	29(13.5%)	5(6.0%)	4(4.3%)	33(11.9%)	9(45.0%)	

*p<.05 **<.01 ***p<.001

〈표 13〉 사회관계에 따른 노인 이성교제의 필요성

영역		빈도	노인 이성교제의 필요성							
			성적욕구		외로움해소		부양부담해소		경제적 안정감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스포츠 활동	전혀없다	222	3.19	.78	3.82	.73	3.13	1.11	2.58	1.15
	일년에 5번 이하	50	3.40	.73	3.81	.68	3.38	.95	3.20	.86
	한달에 5번 이하	142	3.15	1.04	3.76	.60	2.95	.97	2.63	1.07
	일주일에 3번 이하	228	3.12	.71	3.98	.72	3.11	1.12	2.82	1.03
	거의 매일	47	3.03	.99	3.66	1.00	3.26	1.01	2.94	1.03
F 값			1.53		3.51**		1.82		4.65**	
노인 모임 활동	전혀없다	149	3.07	.92	3.75	.93	3.22	1.18	2.56	1.22
	일년에 5번 이하	64	3.20	.70	3.75	.72	3.41	.94	3.47	.94
	한달에 5번 이하	113	3.14	.72	3.84	.69	3.50	.92	3.23	.95
	일주일에 3번 이하	220	3.21	.94	3.88	.65	2.73	1.05	2.48	.98
	거의 매일	143	3.17	.70	3.95	.63	3.15	.96	2.59	.96
F 값			.73		1.79		13.27***		19.87***	
학습 활동	전혀없다	215	3.13	.88	3.78	.92	3.27	1.12	2.81	1.18
	일년에 5번 이하	83	3.25	.66	3.99	.54	3.78	.81	3.22	.95
	한달에 5번 이하	93	3.04	.70	3.68	.67	3.38	.91	3.01	1.03
	일주일에 3번 이하	278	3.23	.86	3.94	.61	2.70	.99	2.46	.96
	거의 매일	20	2.73	.98	3.61	.76	3.25	1.07	2.45	1.14
F 값			2.65*		4.13**		24.03***		11.31***	

*p<.05 **<.01 ***p<.001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스포츠활동(p<.001, p<.01, p<.05), 노인모임활동(p<.001, p<.01, p<.05), 그리고 학습활동(p<.05, p<.01, p<.001)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표 14〉참조). 먼저, 스포츠활동을 일년에 5번이하로 하는 노인의 경우 다른 노인에 비해 사회의 부정적 인식(M=3.51), 경제적 부담감(M=3.24), 그리고 성격차이(M=3.36)가 이성교제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보는 견해가 높았다. 노인모임활동의 경우는 일년에 5번이하로 모임활동을 갖는 노인이 다른 노인에 비해 사회의 부정적 인식(M=3.24), 성생활부담감 및 건강문제(M=3.10), 그리고 성격차이(M=3.34)가 가장 큰 어려움인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았다. 마지막으로, 학습활동에 따른 노인 이성교제의 어려움에 대한 차이를 분석한 결과 학습활동을 전혀 하지 않는 노인의 경우 사회의 부정적 인식(M=3.37)이 이성교제의 가장 큰 장애물로 보았고, 일년에 5번이하로 학습활동을 하는 노인의 경우는 경제적 부담감

(M=3.31)과 성격차이(M=3.16)가 이성교제의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한달에 5번이하로 학습활동을 하는 노인의 경우는 가족의 부정적 인식(M=3.30)이 이성교제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V. 결론 및 제언

노년기의 고독 및 소외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노년기 이성교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노년기 이성교제에 대한 사회의 긍정적인 해석이나 관심도 중요하지만 이성교제의 주체인 노인 스스로가 이성교제를 어떻게 바라보는 하는 관점은 노인과 노인이외의 계층에게 노년기 이성교제의 올바른 태도와 인식을 정립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 생각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을 대상으로 노년기 이성교제에 대한 태

<표 14> 노인의 사회관계에 따른 노인 이성교제의 어려움

변인		영역	빈도	노인 이성교제의 어려움									
				사회적 부정적인식		가족의 부정적인식		성생활부담감 및 건강문제		경제적 부담감		성격차이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스포츠 활동	전혀없다	222	3.23	.78	3.22	.85	2.77	.87	2.93	.98	2.51	1.12	
	일년에 5번 이하	50	3.51	.75	3.41	.72	3.03	.79	3.24	.92	3.36	.78	
	한달에 5번 이하	142	3.11	.75	3.11	.81	2.81	.70	2.73	.90	2.53	.89	
	일주일에 3번 이하	228	3.23	.71	3.13	.94	2.79	.72	3.06	.97	2.67	1.03	
	거의 매일	47	3.26	.73	3.09	.97	2.68	.69	3.13	1.15	2.98	.85	
F 값			2.71*		1.48		1.47		4.03**		9.10***		
노인 모임 활동	전혀없다	149	3.27	.91	3.12	.97	2.83	.91	2.82	1.13	2.90	1.10	
	일년에 5번 이하	64	3.42	.78	3.34	.84	3.10	.74	3.38	.98	3.34	.88	
	한달에 5번 이하	113	3.30	.76	3.24	.87	2.82	.75	3.01	.84	3.09	.70	
	일주일에 3번 이하	220	3.18	.68	3.19	.80	2.69	.73	2.86	.89	2.33	.95	
	거의 매일	143	3.09	.62	3.07	.91	2.78	.68	3.08	.98	2.27	1.01	
F 값			2.80*		1.47		3.73**		4.93**		82.82***		
학습 활동	전혀없다	215	3.37	.83	3.28	.90	2.87	.80	3.03	1.11	2.87	.93	
	일년에 5번 이하	83	3.31	.74	3.11	.90	2.82	.78	3.31	1.04	3.16	.83	
	한달에 5번 이하	93	3.24	.68	3.30	.79	2.91	.72	2.85	.85	3.10	.79	
	일주일에 3번 이하	278	3.09	.68	3.08	.86	2.71	.75	2.87	.86	2.19	1.02	
	거의 매일	20	3.15	.89	2.98	.94	2.63	.89	2.80	.95	2.75	1.25	
F 값			4.48**		2.50*		2.03		4.13**		30.23***		

*p<.05 **<.01 ***p<.001

도를 살펴보고, 사회인구학적 변인, 가족관계 변인, 그리고 사회관계 변인에 따라 이성교제에 대한 태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 대한 결론 그리고 제언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조사대상자의 노년기 이성교제에 대한 태도를 종합해 보면, 이성교제가 건전하다면 가능하며, 이성관계 유형은 유정관계이고, 이성교제에 대한 주변의 인식은 긍정적인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으며, 이성교제는 노년기에 필요하고 그 이유로는 외로움 해소가 가장 크며, 이성교제의 어려움으로는 가족과 사회의 부정적 인식 가장 큰 어려움이고, 이성교제의 어려움은 주로 친구나 동료와 함께 상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인 스스로 이성교제를 조건부적으로 수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성관계를 우정관계로 규정지면서 사회적으로 용납되는 방향으로 이성교제를 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고령사회에 대비하여 노년기 이성교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노인 스스로 이성교제를 자연스러운 일로 인식하면서 다른 연령층과 마찬가지로 이성교제를 애정의 관계나 결혼대상자로서 인식할 수 있는 개방성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이성교제의 주체인 노인뿐만 아니라 미래 노인층을 대상으로 올바른 노년기 교육 및 이성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리라 본다.

또한 이성교제의 필요성 측면에서 연령 중에서 60대 노인층이 다른 연령대의 노인층에 비해 이성교제가 성적욕구와 외로움해소를 목적으로 한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한국사회가 고령사회에 대비하여 노인교육 측면에서 보다 다양한 교육내용을 노인에게 제공해야한다는 근거를 제시한 자료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노년기 이성교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노인의 연령대-연소노인(young old), 중고령노인(middle old), 그리고 고령노인(old-old)-에 맞추어 그에 적절한 노인교육

및 사회교육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정책수립이 시급하다고 본다.

둘째,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노년기 이성교제에 대한 태도를 종합하면, 남성노인이 여성노인에 비해 더 개방적이고, 이성관계로 규정짓는 경향이 더 강하고, 건강할 경우 이성교제에 대해 더 부정적이고, 생활비 만족도가 높은 경우 이성교제에 대한 주변의 인식이 부정적일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이는 노인 스스로 이성교제에 대해 주변의 인식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고 보는 것이며, 특히 건강한 노인의 경우 성적해소 때문에 이성교제를 할 것이라는 사회적 인식에 매우 민감하고, 생활비 만족도가 높은 노인의 경우 자신의 재산에 대한 자녀의 태도를 인식해서 이성관계를 꺼리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 계몽적 차원에서 공익광고와, 문화적 차원에서 노년기 로맨스를 다루는 로맨틱 드라마나 영화제작 등을 통해 노인의 이성교제를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또한, 노인관련정책 수립에 노년기 이성교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대중매체를 통한 노인들의 만남의 기회를 제공해주는 프로그램을 일반 청소년이나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처럼 좀더 흥미롭고 재미있게 제작하여 가족모두가 함께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라 생각한다. 더욱이 가족모두가 함께 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시청한다는 것은 노인들의 이성교제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인식을 감소시키고 노년기 이성교제에 대한 세대간의 벽을 허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노인의 이성교제에 대한 가족의 부정적 인식을 불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이와 같은 사회적 현상이 확산된다면 노년기 이성교제의 어려움에 대한 해결방법에서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가족이나 자녀와의 상의하는 비율이 높아질 것이며 이를 통해 노인을 중심으로 가족간의 유대도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는 또한 미래 고령사회에 대비하여 노인 스스로 자녀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을 부양하고자 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이성교제를 택하는 방안을 구체화시키는 것도

필요하리라 본다.

셋째, 본 연구결과 사회관계를 양성하게 하는 노인의 경우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이성교제에 대해 더 개방적이고 이성관계를 애정관계로까지 발전시킬 수있다고 보며, 나아가 이성교제에 대한 주변 인식이 긍정적일 것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양하고 빈번한 학습활동을 통해 젊은 강사와의 만날 기회가 많고 강의를 통해 노년기의 삶에 대해 더 많은 지식을 습득하게 되면서 주변의 인식에 대해 노인 스스로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았기 때문이라 본다. 또한 빈번한 학습활동을 통해 이성노인과의 접촉이 많고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이성교제에 대해 매우 개방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노인이 모임활동이나 학습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사회적으로 제반적인 노력-예를 들면, 모임활동을 위한 장소, 프로그램 등-이 필요하리라 생각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보다 심층적으로 노인의 이성교제에 대한 태도를 분석하기 위해 조사대상자를 이성교제를 하는 노인과 하지 않는 노인으로 구분하여 집단간 비교를 수행하였다면 노인에게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또한 본 연구가 노인의 이성교제에 대한 태도 분석을 위해 실질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는 상의 어려움이 있기는 하지만 보다 다양한 변인을 활용하였다면 노인이 이성교제에 대한 태도를 이해하는데 보다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한편, 노인 이성교제의 어려움에 대한 해결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인 문항을 작성하지 않고 전체 어려움에 대한 해결방법을 질문하였기에 이성교제의 어려움에 따른 그 해결방안에 대해서는 분석하지 못하였다. 이를 위해 후속연구에서 좀 더 심도 있게 이 주제를 다룬다면 노인 이성교제의 활성화 방안모색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할 것이라 본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노년기에 직면하게 될 다양한 문제 중 고독감과 소외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노년기 이성교제를 활성화시키는데 필요한 기초 자료

를 제공했다는데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고 본다. 더욱이 본 연구는 노년기 이성교제의 주체인 노인을 대상으로 이성교제에 대한 태도를 연구함으로써 노인은 물론 노인이외의 계층에게 노년기 이성교제의 올바른 태도와 인식을 정립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 참고문헌

- 경지영(2000). 여성노인이 지각한 가족의 건강성 경향과 우울정도와의 관계 -인천광역시를 중심으로-. 경희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고승덕(1995). 노인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요인 추출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박사학위 논문.
- 조숙행(1997).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요인 추출. 한국노년학, 17(2), 17-35.
- 김명원(1991). 노인의 소외감에 관한 연구. 한남대 석사학위 논문.
- 김시업(1999). 결혼과 가정. 서울: 학지사.
- 김주희 이창은(2000). 유배우자 노인의 성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노년학, 20(3), 185-195.
- 김태현 한희선(1996). 노년기의 성. 성신여대 생활문화연구, 10, 89-107.
- 김현철(2000). 노인의 성생활 인식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서강대 석사 학위논문.
- 문장합(1999). 노인의 성적관리에 관한 연구. 원광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맹희재(1985). 재가노인 고독감에 관한 연구. 숙명여대 석사학위 논문.
- 박승국(1999). 노인의 성생활과 건강관련 체력에 관한 연구. 한림대 석사학위 논문.
- 박정화(1999). 한국 노인의 노혼 의식 사례연구. 한남대 석사학위 논문.
- 박형규(2001). 고령화사회에 있어 노인의 성생활 실태에 대한 연구. 강남대 석사학위 논문.
- 방애심(1998). 홀로된 노인의 재혼관 연구. 강남대 석사학위 논문.
- 서혜경, 이영진(1997). 노인의 성에 대한 다각적 고찰. '97 제2회 노인보건복지세미나집, 45-62.
- 신성례(1996). 노인의 성에 대한 고찰. 삼육대 논문집, 28, 137-143.
- 윤 희(1990). 한국 노인의 사회적 지원망으로서 형제 및 친구관계에 대한 연구. 서울대 석사 학위 논문.
- 이윤숙(1983). 노인과 성. 현대사회와 노인복지, 172-228. 서울: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
- 이정애(1998). 노인의 친구관계와 일상적 사기. 서울대 석사학위 논문.
- 이창은(2000). 노인의 성생활 인식도와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 한양대 석사학위 논문.
- 임춘식 최복란(1997). 노인의 이성교제와 재혼 태도에 관한 사례연구. 한남대 논문집 사회과학, 27('97.5), 63-97.
- 전차수(1998). 홀로 된 노인의 이성교제와 노혼에 관한 연구. 계명대 석사학위 논문.
- 전현식(2001). 혼자된 노인의 성생활육구태도와 이성교제에 관한 연구. 대구카톨릭대 석사 학위 논문.
- 조황숙(2000). 홀로된 여성 노인의 자매관계 특성이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 교원대 석사학위 논문.
- 차성환(1999). 노인종합복지관과 노인의 삶의 질과의 관계 연구. 연세대 석사학위 논문.
- 최복란(1996). 노인의 이성교제 태도 연구. 한남대 석사학위 논문.
- 최정애(2000). 홀로된 노인의 이성교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연구. 대구대 석사학위 논문.
- 하근영(1998). 노인의 친구관계망과 심리적 복지감에 관한 연구. 원광대 석사학위 논문.
- 하영갑(1998). 홀로된 노인의 재혼을 방해하는 요인에 관한 연구: 경남 진주시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경남대 석사학위 논문.
- Arling, G. (1987). Strain, social support, and distress in old age. *Journal of Gerontologist*, 27, 222-227.
- Bowman, C. C. (1955). Loneliness and social change.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12, 194-198.
- Cobb, S. (1976). Social support as a moderator of life stress. *Psychosomatic Medicine*, 38, 300-314.

- Edward, A. P. & Gordon, K. B. (1976). Sex Differences in Intimate Friendships of Old Ag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739-747.
- Fox, J. H. (1977). Effects of retirement and former work life on women's adaptation in old age. *Journal of Gerontology*, 32, 196-202.
- Gerson, L., Jarjoura, D., & McCord, G. (1987). Factors related to impaired mental health in urban elderly. *Research on Aging*, 9, 356-371.
- Hatch, L. R. & Bulcroft, K. (1992). Contact with friends in later life disentangling the effects of gender and marital statu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4, 222-232.
- Keith, P. M. (1982). Working women versus homemakers: Retirement resources and correlates of well-being. In M. Szinovacz(Ed.), *Women's retirement: Policy implications of recent research*, (pp. 77-91). Beverly Hills: Sage.
- Lin, N., Woelfel, M., & Light, S. (1985). The buffering effect of social support subsequent to an important life event.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6, 247-263.
- Lloyd, S. A. (1987). Conflict in premarital relationship : Differential Perceptions of males and females. *Family Relations*, 36, 290-294.
- Morgan, L. A. (1984). Changes in family interaction following widowhood.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6, 323-331.
- Nancy R. Hooyman & H. Asuman Kiyak (1996). *Social Gerontology : Love, Intimacy, and sexuality in Old Age*(4th ed.). Boston: Allyn & Bacon.
- O' Bryant, S. I. (1985). Sibling support and older widow's well-being. *Th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0, 173-183.
- Perman, D. & Peplau, L. A. (1982). "Theoretical Approach to Loneliness" in Peplau, L.A. & Perman, D.(eds), *Loneliness: A Sourcebook of Current Theory, Research, and Therapy*. New York: John Wiley & Sons. 123-134.
- Rempel, J. (1985). Childless elderly: What are they missing?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7, 343-348.
- Ryan, M. E. & Patterson, J. (1987). Loneliness in the elderly. *Journal of Gerontology Nursing*, 13(5), 6-12.
- Shanas, E. (1979). The family as a social support system in old age. *The Gerontologist*, 19, 169-174.
- Thoits, P. (1984). Explaining distributions of psychological vulnerability: Lack of social support in the face of life stress. *Social Forces*, 63, 453-481.
- Wood, V. & Robertson, J. F. (1978). Friendship and kinship interaction differential effect on the morale of the elderly.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May, 367-375.

(2004년 4월 30일 접수, 2004년 9월 10일 채택)